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조사

류다영 · 양현석¹ · 최용금²

혜전대학교 치위생과 · ¹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무도경호학과 · ²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Needs and perception of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Da-Young Ryu · Hyun-Suk Yang¹ · Yong-Keum Choi²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 ¹Department of Martial Art and Guard, Sunmoon University ·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nmoon University

Received : 26 March, 2014
Revised : 20 May, 2014
Accepted : 2 Octo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Yong-Keum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nmoon University, 70 Sunmoonro
Tangjung-myeon, Asan-si
Chungnam, 336-708, Korea.
Tel : +82-41-530-2731
Fax : +82-41-530-2726
E-mail : cherishgold@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needs for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700 dental hygiene students after receiving informed consent from October 30 to December 20, 2013.

Results : A total of 652 completely answer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proved to be very important necessary that 46.6% of the students said 'probably needed.' Only 5.1% of the students answered the course is not necessary.

Conclusions :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want the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It is desirable that we need to set up a medical communication training and systemic course.

Key Words : dental hygiene, medical communication, need, perception

색인 : 의료커뮤니케이션, 인식, 필요, 치위생(학)과

서론

커뮤니케이션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¹⁾. 의료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임상기술이고, 최근 의료계에서 의료 소비자의 요구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며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의 소양이 아니라 의료인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 중 하나가 되었다²⁾.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 내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07년 한국의

학교교육평가원에서 전국 41개 의과대학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커뮤니케이션 교과과정의 개설되어 있는 의대는 36곳(88%)이며, 아직 개설되지 않은 의대는 5곳(12%)으로 많은 의과대학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간호대 학생들은 커뮤니케이션 수업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과목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성에 대해 4.34점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그리고 이⁵⁾의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통해 효과적인 간호 커뮤니케이션에

Copyright©2014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KSDH is available at <http://www.jksdh.or.kr/> pISSN 2287-1705 / eISSN 2288-2294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omponents		N(%)
College or University	A university	33(5.1)
	B college	214(32.8)
	C university	142(21.8)
	D college	152(23.3)
	E college	111(17.0)
Gender	Male	8(1.2)
	Female	644(98.8)
Grade	1 grade	161(24.7)
	2 grade	304(46.6)
	3 grade	187(28.7)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63(55.7)
	No	289(44.3)
Total		652(100.0)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간호를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지식 및 실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 등⁶의 연구에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론 교과목이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교육 과정 및 교과목 운영은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학·간호학계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과 여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의대, 간호대와 마찬가지로 환자를 대면하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치위생(학)과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에 대한 현황이나 운영 실태 및 학생들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치위생(학)과 학생들도 환자를 응대해야 하는 직종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기술로써 환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 등⁷의 연구에서는 치과 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곧 환자에 대한 최상의 진료를 도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최⁸는 치과위생사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교육을 위한 교수법 및 교재개발이 필요하며 치위생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을 통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지도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의료커뮤니케이션은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치위생학을 비롯하여 보건 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에 앞서 15명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

Table 2.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status

Components		N(%)
Curriculum	Yes	270(41.4)
	No	382(58.6)
Teaching method*	Only theory	102(37.8)
	theory&practice	168(62.2)
Learning semester*	1 grade 1st semester	30(11.1)
	1 grade 2nd semester	179(66.3)
	2nd grade 1st semester	32(11.9)
	2nd grade 2nd semester	23(8.5)
Course credits*	3rd grade 1st semester	6(2.2)
	1 credits	32(11.9)
	2 credits	162(60.0)
Professor in charge*	3 credits	48(17.8)
	Full time prof.	39(14.4)
	Adjunct prof.	121(44.8)
Professor in charge of the occupation*	Part time prof.	93(34.4)
	Uncertain	17(6.3)
	Dental hygienist	195(72.2)
the occupation*	No	30(11.1)
	Uncertain	45(16.7)

*For students studying medical communications was analyzed.

사를 실시하여 일부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한 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비확률 편의추출법에 의하여 임의로 선정된 3년제 대학교 3곳과 4년제 대학교 2곳의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653부를 회수하였으며, 내용기제가 미비한 1부를 제외하고, 65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오¹⁰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정보 4문항,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현황에 관한 6문항,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필요성 4문항,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인식도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인식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측정하였고,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 역시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필요하다'는 5점, '필요하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필요하지 않다'는 2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과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도구의 신뢰도는 필요도 4문항은 cronbach α =.855, 인식도 4문항 cronbach α =.862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현황,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인식도 및 필요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유무, 병원 임상실습경험 여부, 수업방식에 따른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인식도 및 필요성은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wo

samples t-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수는 총 652명으로 여학생이 98.8%였고, 2학년 46.6%, 임상 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은 55.7%였다(Table 1).

Table 3. Students' perception and needs with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Components		N(%)
Do you need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Never	3(0,5)
	Not	16(2,5)
	Usually	154(23,6)
	Probably	206(31,6)
	Definitely	273(41,9)
Do you need to study courses related to medical communication?	Never	-
	Not	33(5,1)
	Usually	221(33,9)
	Probably	304(46,6)
	Definitely	94(14,4)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and patients in clinical practices?	Never	-
	Not	13(2,0)
	Usually	117(17,9)
	Probably	329(50,5)
	Definitely	193(29,6)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in clinical practices?	Never	1(0,2)
	Not	13(2,0)
	Usually	129(19,8)
	Probably	320(49,1)
	Definitely	189(29,0)
Do you think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is important as much as knowledge increase?	Never	-
	Not	19(2,9)
	Usually	203(31,3)
	Probably	243(37,3)
	Definitely	187(28,7)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respect patients more?	Never	4(0,6)
	Not	21(3,2)
	Usually	195(29,9)
	Probably	264(40,5)
	Definitely	168(25,8)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improve your communication skills with patients?	Never	-
	Not	27(4,1)
	Usually	134(20,6)
	Probably	275(42,4)
	Definitely	216(33,1)
Are you satisfied with you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others?	Never	22(3,4)
	Not	125(19,2)
	Usually	368(56,4)
	Probably	105(16,1)
	Definitely	32(4,9)
Total		652(100,0)

2.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현황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개설현황을 보면 교육과정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1.4%였고,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58.6%였다.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방식을 조사한 결과 실습수업과 함께 진행된다가 62.2%, 이론수업만으로 진행된다는 37.8%였다. 또한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 학습 기간은 1학년 2학기가 66.3%로 가장 많았고, 학점부여에 있어서는 2학점이 6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전임교수가 14.4%, 겸임 교수가 44.8% 가장 많았으며, 담당 교수의 직종은 치과위생사가 72.2%로 나타났다(Table 2).

3.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다’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41.9%, ‘필요하다’ 31.6%가 응답하였고,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수업이 필요하다’에 대해 ‘필요하다’ 46.6%로 가장 많았다. ‘임상에서 환자와 의료진간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에서 ‘필요하다’가 50.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 향상이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만큼 중요하기에 ‘그렇다’ 37.3%, ‘매우 그렇다’ 28.7%였다. ‘의료커뮤니케이션 학습이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42.4%, ‘매우 그렇다’ 33.1%였다. 또한,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56.4%, ‘그렇다’가 16.1%였다(Table 3).

4.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유무에 따른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필요성 및 인식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유무에 따라 의료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수업이 필요하다’, ‘임상에서 환자와 의료진간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임상에서 의료진간에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또한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배우게 되면 환자들을 보다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leq 0.01$)(Table 4).

5.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방식에 따른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필요성 및 인식

수업방식에 따른 의료커뮤니케이션 필요성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은 학생이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수업이 필요하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만큼 중요하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배우게 되면 환자들을 보다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Table 4. Students' needs and perception by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Components		Mean \pm SD	p*
Do you need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Course Yes	4.24 \pm 0.88	0.003
	No	4.03 \pm 0.88	
Do you need to study courses related to medical communication?	Course Yes	3.85 \pm 0.80	<0.001
	No	3.60 \pm 0.74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and patients in clinical practices?	Course Yes	4.15 \pm 0.78	0.041
	No	4.03 \pm 0.71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in clinical practices?	Course Yes	4.11 \pm 0.80	0.097
	No	4.01 \pm 0.73	
Do you think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is important as much as knowledge increase?	Course Yes	4.06 \pm 0.85	<0.001
	No	3.82 \pm 0.82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respect patients more?	Course Yes	3.98 \pm 0.86	0.010
	No	3.80 \pm 0.84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improve your communication skills with patients?	Course Yes	4.02 \pm 0.88	0.532
	No	4.06 \pm 0.81	
Are you satisfied with you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others?	Course Yes	2.97 \pm 0.85	0.388
	No	3.02 \pm 0.81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Table 5. Students' needs and perception by teaching method*

Components			Mean ±SD	p**
Do you need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Teaching method	Only theory	4.18±0.94	0.352
		Theory & Practice	4.28±0.85	
Do you need to study courses related to medical communication?	Teaching method	Only theory	3.72±0.78	0.033
		Theory & Practice	3.93±0.80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and patients in clinical practices?	Teaching method	Only theory	4.03±0.78	0.050
		Theory & Practice	4.22±0.77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in clinical practices?	Teaching method	Only theory	4.04±0.82	0.278
		Theory & Practice	4.15±0.79	
Do you think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is important as much as knowledge increase?	Teaching method	Only theory	3.89±0.90	0.014
		Theory & Practice	4.15±0.80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respect patients more?	Teaching method	Only theory	3.81±0.08	0.015
		Theory & Practice	4.08±0.80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improve your communication skills with patients?	Teaching method	Only theory	3.95±0.92	0.325
		Theory & Practice	4.06±0.85	
Are you satisfied with you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others?	Teaching method	Only theory	3.04±0.92	0.276
		Theory & Practice	2.92±0.80	

*For students studying medical communications was analyzed.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Table 6. Students' needs and perception by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Components			Mean ±SD	p*
Do you need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4.05±0.92	0.028
		No	4.20±0.84	
Do you need to study courses related to medical communicatio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60±0.80	<0.001
		No	3.84±0.72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and patients in clinical practice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99±0.77	0.001
		No	4.18±0.69	
Do you think medical communication skills are needed for communications between medical members in clinical practice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94±0.81	<0.001
		No	4.18±0.68	
Do you think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is important as much as knowledge increas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84±0.87	0.009
		No	4.01±0.80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respect patients mor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77±0.87	<0.001
		No	4.01±0.81	
Do you think communication courses would help you improve your communication skills with patient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4.01±0.84	0.201
		No	4.09±0.83	
Are you satisfied with you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other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05±0.82	0.071
		No	2.93±0.83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인식을 나타냈다(p<0.05)(Table 5).

6.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필요성 및 인식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수업이 필요하다', '임

상에서 환자와 의료진간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임상에서 의료진간에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또한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배우게 되면 환자들을 보다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p < 0.01$) (Table 6).

총괄 및 고안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의사소통교육'을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¹⁰⁾. 특히, 의료계에서는 환자와 진료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의료진의 핵심역량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과목 필요성 및 인식을 조사하여 학생들의 의료커뮤니케이션 향상에 필요한 적극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의 치위생(학)과에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41.4%, '없다'의 비율은 약 58.6%였으며, 또한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론만 운영되고 있다가 37.8%, 이론과 실습이 함께 운영된다는 62.2%로 나타났다. 손 등¹¹⁾은 간호대학 학부과정의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 75%가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이론 수업방식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부 4년제 대학 2곳과 3년제 대학 3곳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에 전국 치위생(학)과의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향후 전반적인 치위생(학)과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의 현황과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의료커뮤니케이션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조사한 결과 전임교수 14.4%, 겸임교수 44.8%, 외래교수 34.4%로 나타났고, 담당 교수의 직종은 치과위생사 72.2%였다. 김 등⁴⁾의 연구에서 타 전공 교수가 가르쳐주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관한 정보는 믿기 어렵고, 학습동기가 부족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학생들이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타 전공 직종의 전공자보다 같은 직종의 전공자가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강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치과위생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겸임교수의 비율이 44.8%로 전임교수의 비율보다 높았고, 겸임교수와 전임교수가 가지는 특성이 다르므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과 학교생활을 지도하고 있는 전임교수가 교과목을 담당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도 검토가 필요하겠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를 보면 66%의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향상이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김 등⁴⁾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육의 유용함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3.99점(5점 척도)으로 높게 나타나 유사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실제로 학생들이 환자를 대면할 때 발휘될 수 있는 있는 능력으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 수업을 통해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응답이 75.7%였으며, 이는 김 등¹⁰⁾의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의료직종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7점 척도에서 6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결과와 유사하였고, 학생들은 의료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의료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이며, 의료커뮤니케이션 학습을 통해 스스로 환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5%였고, 임상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80.1%와 78.1%로 높게 나타났다. 김¹²⁾의 연구에서는 환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 경청기술 연마와 실천, 수용자 중심의 어휘사용, 양방향 대인 커뮤니케이션 모델 지향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환자 또는 진료진과 함께하는 직종으로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 그 전문성을 보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학생들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필요성에 대한 높은 비율이 보여주듯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기회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부분에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유들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연계되어 얻어진 증대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체 치위생(학)과의 교과목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정확한 운영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수업방식에 따른 의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학생들

이 높은 인식도와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는 실습과 이론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 실제적이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므로 인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업방식에 상관없이 4점 이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p=0.352$),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과 박¹³⁾은 의료 전문가의 자존감이 환자에게 안도감과 신뢰감을 주게 되는데 실습수업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들은 학생에게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존감까지 더욱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학부과정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 강의와 실습이 개연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¹¹⁾, 박¹⁴⁾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을 위해 임상 전 학생들에게도 경험 위주의 실습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치위생(학)과에서는 이론 중심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이 아닌 이론과 실습수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적절한 교과목의 구성과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병원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성과 인식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높은 인식도와 필요도를 나타냈다. 이는 실제로 임상현장 실습에 대한 업무 및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두려움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함을 과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¹⁵⁾은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환자와의 관계, 교육자 즉 의료진간의 관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임상실습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 의료커뮤니케이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여러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의료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커뮤니케이션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성과 인식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해당 교육과정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임의적인 편의표본추출로 우리나라 치위생(학)과 일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치위생(학)과 재학생 대상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자료는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대상을 전국 치위생(학)과로 확대하여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운영 실태,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실제로 운영을 통한 교육의 효과 등 다양한 접근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6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료커뮤니케이션 수업 받은 경험이 '없다'가 58.6%였으며, 수업방식에서는 37.8%가 이론수업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73.5%, 환자와 의료진간 소통을 위해 의료커뮤니케이션 필요성에 대해 80.1%, 의료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의료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78.1%가 응답하였다.
3.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와 이론과 실습수업 형태로 교육받는 학생들이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4.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의료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대해 높은 필요성과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인을 비롯한 임상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직종의 핵심역량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위생(학)과의 체계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과정과 적극적인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1. Kim YK, Suh MS. The impact of the nonverbal communication of the medical service provider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behavior. *Consumption Culture Study* 2006; 9(3): 155-84.
2. Kim DH. Medical communication: three function approach. *Korean J Health Commun* 2006; 1(1): 1-6.
3. Ro YG. Status of medical communication curriculum: focused on

-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6th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spring symposium, Korean J Health Commun 2009; 3-7.
4. Kim GM, Han KS, Lee YH, Park JW. Student' s attitudes towards the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in the korean school of nursing. Korean J Health Commun 2007; 2(2): 136-45.
 5. Lee JR. Communication class and self-efficacy-case study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Korean J Health Commun 2009; 4(2): 140-48.
 6. Kim SA, Park JH, Lee HH.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004; 34(3): 412-20.
 7. Kang JO, Kim JH, Hwang JM, Kwon HJ, Seong JM, Lee SK, et al. Recognition about communication of dental personnels in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in the capital.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 34(3): 318-26.
 8. Lee JH, Choi J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s medical communication, reliance and satisfaction to dental hygienist. J Korean Dent Hyg 2012; 12(5): 1017-27.
 9. Oh YJ.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Doctoral dissertation]. Seoul:Univ. of Korea, 2008.
 10. Kim S, Lee SJ, Choi CJ, Hur YR.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skills of pre-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06;18(2):171-82. [http://dx.doi.org/ 10.3946/kjme.2006.18.2.171](http://dx.doi.org/10.3946/kjme.2006.18.2.171).
 11. Son HM, Kim HS, Koh MH, Yu SJ. Analysis of the communication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of korea.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1;17(3):424-32.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424>.
 12. Kim EJ. Analysis of doctor-patient' s communication through documentary consideration [Master' s thesis]. Gwangju: Univ. of Chonnam National, 2010.
 13. Hyun MY, Park EO.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08; 14(1): 5-11. [http:// dx.doi.org/10.5977/JKASNE.2008.14.1.005](http://dx.doi.org/10.5977/JKASNE.2008.14.1.005).
 14. Park EW. Development of medical communication subject in medical school curriculum. Korean J Health Commun 2009; 4(1): 22-33.
 15. Kim JS.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2012; 7(2): 94-102.